

# 대회사

이번 제32차 한일 일한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가해 주신 한일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의 고승 대덕 스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영향으로 예년과 달리 11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불교계는 다소나마 일본 국민들의 슬픔을 위무하기 위하여 조계종을 위시하여 여러 종단의 구호팀 파견 및 희생자 천도재를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일본 희생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하였고 피해지역을 찾아가 일본 불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슬픈 일이었지만, 양국의 불교계는 이번을 계기로 서로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과 깊은 의미 속에도 이번 대회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국 사무국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한국대회는 천태종의 주요 사찰인 관문사에서 진행되어 한국불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종교간의 화합문제”는 인류의 갈등 요소 중의 하나로써 우리 종교인이 앞장서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발칸반도, 인도와 파키스탄, 북아일랜드, 이라크 등 종교와 종파간의 끝없는 살육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릇 종교의 창시자는 마음의 평화와 관조, 자연에 대한 경외와 무한한 사랑을 주창하였지만 종교가 거대화하면서 어느틈에 세속적인 조직 이기주의가 만연하면서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종교간 갈등 소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존과 상생이라는 불교적 가치로 이 같은 갈등을 아우르기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큰 슬픔을 극복하고 한일 불교계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지원이 넘어서는 지속적인 연대로 동북아 평화 구축을 실현하는 자리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불교를 통한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와 갈등 해소,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한일불교 고승대덕 여러분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행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불기2555년 11월 15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자 승